Check for upd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76, No. 5 (October 2026) pp. 1-21
Print ISSN 1229-6880
Online ISSN 2287-7827
https://doi.org/10.7233/jksc.2026.76.5.001

19세기 말~20세기 초 의제개혁이 직물산업에 미친 영향

- 대한제국기 문관복을 중심으로 -

강 빛 나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

Effect of Clothing Reforms from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on the Textile Industry

- Focusing on Official Civil Servant Uniforms during the Korean Empire -

Bitna Kang
Doctoral, Dept. of Fashion Design, Dong-A University
(received date: 2025. 7. 31, revised date: 2025. 9. 12, accepted date: 2026. 9. 8)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Empire's textile industry was influenced by the nation's civil servant clothing reforms 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style uniforms for civil official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Dress Code for Civil Servants(文官服裝規則)>, enacted during this period,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social context surrounding its implementation, its provisions and characteristics, and the state of the empire's textile industry at the time. This research also analyzed details of the dress code described in『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高宗實錄)』and the state press journal『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官報)』. Regarding the textile industry, the study reviewed information and trade statistics published in the『Journal of Korean Affairs(韓國誌)』and the thesis of the Japanese scholar Kajimura Hideki(梶村秀樹), and examined how the textile industry changed in conjunction with the reform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crease in cotton fabric imports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was presumably due to the increased imports of shirt material following the adoption of Western-style civil officials' uniforms. The increase in silk fabric imports is likely attributable to growing demand for lining material. In addition, the clothing reforms' designation of simheukgamnasa(深黑紺羅紗) or yeoncheongsaeknasa(軟青色羅紗) as the base for civil servants' clothes increased wool fabric imports. The empire's fabric import statistics show the reforms' remarkable effect on wool imports, as they unconventionally stipulated wool as a material for civil servants' official uniforms. Furthermore, the Korean Empire's Gwangmu Reform(光武改革) continued to promote sericulture, influencing the country's silk expor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at clothing reforms for civil servants during the Korean Empire significantly shaped changes in the nation's textile industry.

Key words: civil servants' official uniform(문관복), dress code for civil servants(문관복장규칙), period of the Korean Empire(대한제국기), reforms of clothing(의제개혁), textile industry(직물산업)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9385).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Bitna Kang, e-mail: qlcsk910@gmail.com

I. 서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의제개혁은 국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국내외적으로 격변하였던 정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해당 시기의 의제개혁은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 1884년), 갑오의제개혁(甲午衣制改革, 1894년),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 1895년), 대한제국의 제개혁(大韓帝國衣制改革, 1897~1910년)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통하여 전통식 관복의 간소화를 거쳐 군복과 경관복의 서구화, 문관복의 서구화를 이루었다. 그중 대한제국기 의제개혁은 외세의 영향 아래 추진되었던 갑신의제개혁, 갑오의제개혁, 을미의제개혁과는 달리 대한제국 정부에 의하여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의제개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2013c).

18세기 중엽 유럽의 직물산업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은 직물의 과잉생산과 원료공급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판매시장 개척과 원료공급지 확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였다(Koo, 1999). 이러한 영향은 조선에도 파급되었고 조선 정부에서는 국가 근대화 정책으로 자주 부강한 국가를 수립하여 외세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존하고자 하였다(NIKH, 2013a). 대한제국기에는 외교적 노력으로 서구 열강 중심의 근대적 국가 체제에 들어가 자주독립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문관복 의제개혁을 시행하였다(Lee, 2012).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 이전에는 앞서 시행되었던 세 차례 의제개혁으로 견직물 위주의 바탕 소재를 사용하였던 전통식 문관복 제도의 간소화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고종은 1900년 4월 17일에 〈훈장조례(勳章條例)〉,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을 반포하여 최초로 서구식 문관복 제도를 제정하였다(*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1900). 이후 〈문관복장규칙〉과 〈문관대례복제식〉은 1904년과 1905년에 『관보(官報)』의 정오(正誤)를 통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Beopgyuyupyeon*, 1908a; *Beopgyuyupyeon*, 1908b).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조선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서구식 의제 도입 이외에도 세계 각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며 근대무역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서구식 상품이 국내에 유입되었는데(Song, 200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조선의 대외무역은 각국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였으며 1894년부터 1905년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와 무역을 독점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일본의 근대공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역이 이전의 서구상품을 재수출하는 중개무역에서 자국상품을 수출하는 직접무역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가 조선의 무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 조선의 대외무역품 중 수출품으로는 곡물류가 전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였고 수입품은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등의 직물류가 전체 수입액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농민생산품은 상품화되어 대외로 수출되었고 이와 반대로 근대공업상품 중 직물은 국내에 수입되어 백성들의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당시 조선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TCHCCS], 1979). 직물류가 국내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요인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공업상품의 국내 유입의 영향 이외에도 주요 의복 소재로 기계에 의해 생산된 직물을 사용하였던 서구식 의제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An, 2006).

대한제국기 문관복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화기 문관복 제도에 대한 연구(e.g., Kim, 1977), 대한제국기 문관 대례복에 대한 연구(e.g., Lee, 2008; Lee, 2010b; Lee, 2011; Lee, 2013)와 대한제

국기 궁내부 대례복에 대한 연구(e.g., Choi, 2008), 일본과 관련하여 1905년과 1906년 사이의 서구식 대례복 제도 개정을 다룬 연구(Choi, 2011), 대한제국기 서구식 소례복에 대한 연구(e.g., Lee, 2018), 대한제국기 프록코트의 형태와 제작법을 다룬 연구(Choi, 2015) 등이 이루어졌다. 대한제국기 직물산업 관련 선행연구로는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수입 직물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비롯하여 수입 직물이 수용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한복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Park, 2014)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의류 직물과 관련한 수입품의 종류와 무역의 특성을 다룬 연구(Kim, 2018),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을 중심으로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의 종류와 각 직물의 무역 특성을 살펴본 연구(Kim, 2021)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은 직물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산업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산업의 변화는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 등에 의해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산업 변화의 연관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 대조하고 분석하여 정리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시대적 배경과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내용 및 특징, 해당 시기 직물산업의 현황을 알아보며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이 직물산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는 대한제국이 처음 선포되었던 1897년부터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1905년으로 설정하였고 직물산업 현황은 대한제국의제개혁보다 앞서 시행되었던 을미의제개혁 시기인 1895년부터 〈문관복장규칙〉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규정되기 전인 1906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한제국기 문관복에 서구식 의제를 처음 도입하였던 〈문관복장규칙〉을 비롯하여 해당 시기 직물산업의 현황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산업에 관하여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원문을 발췌하여 살펴보았다.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 관련 자료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면적으로 기록한 근본적인 사료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문관복 의제개혁에 관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고종실록(高宗實錄)』과 국가 공식 기관지인『관보』, 대한제국기의 공식 법전인『법규유편(法規類編)』 등에서 문관복 의제개혁 관련 기록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한제국기에 착용하였던 문관복 유물 자료와 당시의 착장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직물산업 관련 자료는『한국지(韓國誌, Описание Кореи, Journal of Korean Affair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한국지』는 19세기 말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할 목적으로 조선 내에 조선학 관련 학자들을 두고 조선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였던 내용을 기록한 조선에 대한 총체적 조사 연구서이자 정책자료집으로(The Russian Empire [TRE], 1984a) 당시 조선의 직물산업 수출입 현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한국지』에는 국내 직물산업에 대한 내용이 면밀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한국지』에 수록되어 있는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연관된 직물산업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학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연구 중 조선의 직물산업을 다룬 연구도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일본이 조선의 산업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기록한『조선산업지(朝鮮產業誌)』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II.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시대적 배경

1. 광무개혁(光武改革)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었던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일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과 왕세자는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NIKH, 2013b). 고종은 아관파천(俄館播遷, 1896년) 이후 조선 정부 내에서 일본 세력을 축출하였고 일본의 강압으로 진행되었던 갑오개혁을 중단하였으며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광무개혁(1896년 2월~1904년 2월)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였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이후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년 10월 12일~1910년 8월 29일)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였고 이와 함께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으며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여 자주독립국의 면모를 갖추었다(Kim, 2016). 또한, 고종은 국정 주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대한제국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Song et al., 1971). 시대적 대전환기이자 열강의 세력균형기였던 당시 대한제국은 완전한 자주적 독립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근대적 상공업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각종 회사를 설립하였고 기술학교를 세웠으며 외국의 간섭 없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Oh, 1991).

1890년대 이후 해외를 드나들며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경험하였던 개화파는 민간인의 근대적인 공장 설립을 권장하며 가장 유망한 민간공업으로 직조업(織造業), 양잠업(養蠶業) 등을 제시하였다(Choi, 1991). 대한제국의 민족 자본가들은 직물 관련 회사들을 설립하였으나 외세의 방해, 자본의 부족, 기술 미숙, 부정부패한 관원들의 문제 등으로 국가 근대화 산업 대부분이 일본에 탈취당하게 되었고(NIKH, 2013b), 근대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본 차관이 일본 자본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주적인 개혁과 근대적 산업발전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Lee, 2017).

대한제국기에 양잠업과 관련하여 잠업진흥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잠업진흥정책은 조선 왕조 전시기를 거쳐 시행하였던 정책으로 특히 고종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00년에는 잠업진흥정책의 주무관청으로 농산공부에 잠업과를 신설하였고 1902년에는 용산 양잠소를 설립하여 정부의 고위 관원들의 부인들에게 근대 양잠 기술을 습득시켜 견직물을 직조하도록 하였다(TCHCCS, 1979).

이 시기에는 갑오개혁 중단으로 단발령과 서구의제 허용이 사실상 철회되었음에도 배재학당의 학생들과 관원들을 중심으로 단발하는 사람들과 양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였으며("Paichai college students", "As we said in the previous newspaper", 1896), 1895년 을미의제개혁 당시 제정되었던 서구식 군복과 경관복 의제 또한 수정과 보완이 거듭되며 시행되었다. 1900년에는 서구식 의제가 문관복에 도입됨에 따라 군복과 경관복을 비롯하여 모든 관복에 서구화가 이루어졌다(*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1900).

2. 러일전쟁(露日戰爭)

청일전쟁(1894년)과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 내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경쟁하였고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1904년 러일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1904년 2월~1905년 9월)(NIKH, 2013b).

전쟁 중이었던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제국주의 주요 국가들은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세력권을 서로 조정하였는데(NIKH, 2013c), 러일전쟁 초기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이유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화하여 합방으로 이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NIKH, 2013c). 한편, 대한제국 정부는 러일전쟁이 대한제국 독립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1903년 후반부터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고자 대한제국을 중립지대로 교전국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대한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의 수는 임오군란(1882년), 갑신정변(1884년), 청일전쟁 등과 같이 정세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세력의 작용과 함께 그 수가 급증하였는데 러일전쟁 후에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으며 대부분 규모가 큰 상인이나 자본을 가진 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수탈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TCHCCS, 1979).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났으며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실력을 키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고 민족 자본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각종 회사도 설립하였다(NIKH, 2013d).

3. 을사늑약(乙巳勒約)

러일전쟁이 발발되기 전부터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기본경영방안을 시행하였고 국제관계를 염려하여 보호국화의 명분을 잃지 않고자 대한제국과의 조약체결을 계획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하게 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자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할 것을 고종에게 강요하였고 고종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압박하여 을사늑약에 도장을 찍게 하였는데,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하여 조약체결에 앞장선 다섯 명의 대신은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로 외부인(外部印)을 빼앗아 조약문에 도장을 찍었다(NIKH. 2013c). 이처럼 을사늑약은 고종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체결되었던 불법 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대외관계를 전담하고 외국과의 조약체결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외교권 박탈 조약이었다(Kim, 2016).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의제에도 종속국 체제를 확립하고자 1906년 대한제국 관원의 의제를 일본의 제도보다 한 등급 낮게 규정하였다(Choi, 2011).

당시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성장하였던 민족계 상공업은 을사늑약 이후 큰 타격을 받아 파산하거나 일본의 정책에 굴복함으로 그 잔명을 보전해 나갔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은 세력을 비롯하여 상품의 침투와 상품의 시장화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이는 대한제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것이 항일독립전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TCHCCS, 1979).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 호소하고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이후 1907년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으로 군대가 해산되며 일본에 의하여 모든 권리를 빼앗겼고 1910년 국권 피탈(國權被奪)로 국가의 주권을 잃게 되었다(NIKH. 2013c).

III.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내용과 특징

1.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내용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의제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의 전통식 관복은 매일 공사 시와 사은 관계로 배알할 시, 재외 문무관이 공사에 참여할 시에 착용하였던 공복으로 복두(幞頭), 포(袍), 대(帶), 홀(笏), 화(靴) 등으로 구성하였다(Yoo, 1980). 포의 형태는 소매가 넓은 단령(團領: 둥근 깃)으로 품계에 따라 포의 색을 다르게 착용하였으며(*Daejeontongpyeon*, 1785a) 대의 장식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착용하였다(*Daejeontongpyeon*, 1785b).

문무관의 상복은 평상 집무 시에 착용하였으며 사모(紗帽), 포, 대, 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공복 제도와 달리 관으로 사모를 착용하였으며 홀을 들지 않았고 포에 흉배(胸背)를 달았다(Yoo, 1980). 포의 형태는 공복의 포와 같았고 색은 현록색(玄綠色)이었으며 소재는 품계에 따라 당상(堂上) 삼품(三品) 이상과 당하(堂下) 삼품 이하 간에 견직물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였다(*Daejeontongpyeon*, 1785a). 대의 장식도 품계에 따라 다르게 착용하였으며(*Daejeontongpyeon*, 1785b) 흉배는 문관 당상관이 쌍학(雙鶴), 당하관이 단학(單鶴), 무관 당상관이 쌍호(雙虎), 당하관이 단호(單虎)를 부착하였다(Yoo, 1980).

이처럼 전통식 관복은 품계를 구별하는 수단으로 포의 바탕 소재와 색상, 대의 장식, 흉배의 문양 등을 다르게 하였고 포의 소재로 다양한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과정을 보면, 나라를 대표하여 국내외를 넘나들며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였던 외교관의 의복에 서구식 의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는데, 외교관의 대례복과 소례복(小禮服) 제도는 1898년 〈출사각국외교관영사관이하관원복장식(出使各國外交官領事官以下官員服章式)〉을 통하여 을미의제개혁의 전통식 의제를 계승하면서 주재하는 각국의 상례(常禮)에 따라 소례복과 통상복을 편하게 착용하도록 하였다(*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1898). 1899년 8월 3일에는 "조신(朝臣)들의 복장을 변통하는 일로 지난번에 조칙(詔勅)을 내렸으나 미처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타국에 가는 사신들의 복식은 우선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여 개정하라. …"라는 조령을 내려 외국에 파견하는 관원의 의제에 서구식 의제를 도입하였다(*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1899b).

이후 문관복에 서구식 의제를 도입하였는데 『고종실록』에 기록된 문관복 의제개혁 관련 내용을 보면, 1899년 1월 1일 조령으로 장례원(掌禮院)에 관원들의 의제를 제례(祭禮), 하례(賀禮), 연례(燕禮)를 제하고 옛것과 새로운 것을 아울러 각국에서 통행되고 있는 규례를 따라 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1899a). 이에 조령에 따른 서구식 문관복 의제인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과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이 1900년 4월 17일에 반포되었다.

『관보』에 기록된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관복을 대례복, 소례복, 상복(常服)으로 나누었으며 본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를 문관으로 임명된 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중 대례복은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만 착용하도록 하였고 착용시기는 황제께 문안할 시, 황제의 거둥 시 또는 황태자의 거둥 시 등으로 정하였다. 대례복의 구성은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바지(袴), 검(劒), 검대(劒帶), 백포하금(白布下襟: 땀받이), 백색수투(白色手套: 장갑)로 하였다.

소례복은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判任官)이 착용하도록 하였고 착용시기는 궁 안에서 황제를 진현할 시, 공식 연회에 참가할 시 등으로 정하였으며 소례복의 구성은 진사고모(眞絲高帽), 구제연미복(歐制燕尾服), 하의, 바지로 하였다.

상복의 경우에도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이 착용하도록 하였고 착용시기는 출근할 시, 한가로이 있을 시, 집무할 시 등으로 정하였으며 상복의 구성은 구제통상모(歐制通常帽), 구제통상의(歐制通常衣), 하의, 바지로 하였다.

〈문관복장규칙〉의 조항 중 제9조에 궁내부와 외각부 부원, 대소관인 모두 본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1906년 2월에 〈궁내부본부및예식원예복규칙(宮內府本府及禮式院禮服規則)〉이 제정됨에 따라(*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1906) 궁내부 및 예식원의 예복이 따로 분리되었다. 그 외 〈문관복장규칙〉으로 무관과 경관이 문관으로 전임하였을 때 본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고 판임관이 부득이하게 대례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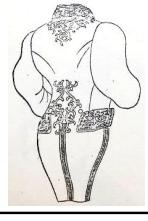
우 소례복으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1905년과 1907년에 개정된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을 준비하지 못한 관원의 경우 소례복(프록코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Beopgyuyupyeon*, 1908a). 또한, 부칙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공사관 관원의 관복에 〈문관복장규칙〉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내용을 보았을 때, 대한제국 초기에는 전통식 문관복 제도를 계승하여 문관복에 의제를 적용하였으나 1900년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과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을 공표함으로 서구식 의제를 문관복에 도입하였다. 문관복은 대례복, 소례복, 상복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복장에 따라 적용대상과 착용시기, 구성 등을 달리하였다.

2.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특징

문관복 중 대례복의 자세한 제식과 도식은 〈문관대례복제식〉과 1901년에 발표한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에서 살펴볼 수 있다(*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1901). 1900년 『관보』에 기록된 〈문관대례복제식〉에 따르면 대례의는 흑감색 나사 직물인 심흑감나사(深黑紺羅紗)를 바탕 소재로 하였고 형태는 앞판이 흉부(胸部)에서 합하여지는 연미복 형태로 관직에 따라 칙임관은 너비 5촌(寸), 주임관은 너비 4분(分)으로 가장자리에 가로 문양 금선(金線)을 두르도록 하였다. 전면표장(全面表章)은 관직에 따라 무궁화 문양의 송이 수를 다르게 하여 자수를 놓았는데 칙임관 1등은 전근화(全槿花) 6지(枝), 2등은 전근화 4지, 3등은 전근화 2지, 칙임관 4등과 주임관은 무궁화 문양 자수를 없이 하였다. 또한, 좌우 칼라 부분에 칙임관은 반근화(半槿花) 6지, 주임관은 반근화 4

〈Table 1〉 Coat Drawings

Main Part	Chikimgwan		Juimgwan
Front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Back			

지를 수놓도록 하였다. 후면표장(後面表章)은 허리 부분에서 갈라진 좌우 단에 가로 문양 금선을 두르고 뒷자락의 갈라진 부분의 가장자리에 지름 7분의 금제(金製) 단추 1개를 달도록 하였으며 칙임관은 등뼈 부분에 무궁화 문양을 자수하도록 하였다. 소맷부리 장식인 수장(袖章)은 칙임관과 주임관 모두 연청색나사(軟青色羅紗) 직물을 바탕 소재로 수구(袖口)에서 3촌 떨어진 부분에 가로 문양 금선 1줄을 두르도록 하였으며 후부(後部) 봉합(縫合) 부분 내 좌우반면(左右半面)에 근화각 1지를 금수(金繡)하도록 하였다. 칼라 장식인 령장(領章) 또한 칙임관과 주임관 모두 연청색나사 직물을 바탕 소재로 가로 문양 금선 2줄과 금선 안에 근화 2지를 금수하도록 하였으며 칙임관만 령장으로 칼라 앞부분 좌우에 무궁화 1줄기를 각각 따로 수놓아 뒷부분에서 서로 마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0년의 문관대례복 규정은 대한제국보다 서구식 대례복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프랑스의 대례복 형태를 따랐던 일본의 대례복 형태를 참고하였다(Lee, 2010a). 『관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문관대례복제식〉에 따른 문관대례의 도식은 〈Tabl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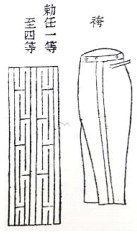
하의는 조끼 형태의 의복으로 칙임관과 주임관 모두 심흑감나사를 바탕 소재로 하였고 2촌 간격으로 5분 지름의 금제 단추를 달도록 하였다. 〈문관대례복제식〉에 따른 하의 도식은 〈Fig. 1〉과 같다.

대례바지는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바지 좌우 측면에 칙임관은 양조요철문(兩條凹凸紋)으로, 주임관은 단조요철문(單條凹凸紋)으로 너비 1촌의 금선을 두도록 하였다. 〈문관대례복제식〉에 따른 대례바지 도식은 〈Fig. 2〉, 〈Fig. 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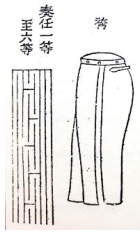
대례모는 흑색 벨벳인 흑모천아융(黑毛天鵝絨)을 바탕 소재로 형태는 산형(山形)이었으며 대례모의 길이는 1척(尺) 5촌, 높이는 4촌 5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착용자의 두상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수리 끝(頂端)에 칙임관은 백색의 털로 주임관은 흑색의 털로 장식모(飾毛)를 달도록



〈Fig. 1〉 Waistc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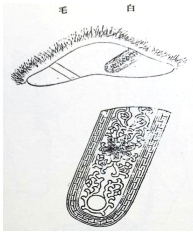


〈Fig. 2〉 Chikimgwan tro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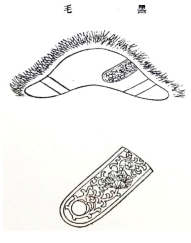


〈Fig. 3〉 Juimgwan trousers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1901, September 3)



〈Fig. 4〉 Chikimgwan hat



〈Fig. 5〉 Juimgwan hat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1901, September 3)

하였다. 모자의 측장(側章)은 무궁화 1지를 정면에 두도록 하였고 줄기 변(緣邊)에는 지름 7분의 금제 단추를 달도록 하였다. 가장자리에는 금선을 두르도록 하였는데 칙임관은 요철문, 주임관은 문양이 없도록 하였으며 너비는 모두 3분으로 하였다. 〈문관대례복제식〉에 따른 대례모 도식은 〈Fig. 4〉, 〈Fig. 5〉와 같다.

〈문관복장규칙〉의 시행 상황은 앞서 살펴본 〈문관대례복제식〉과 〈문관대례복도식〉에 따라 제작된 문관대례복 유물 자료와 착장 사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로 해당 연도 제식과 도식에 따라 제작된 유물은 7점 정도로 파악된다(Le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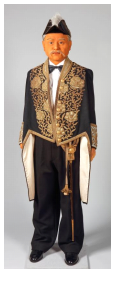
〈Fig. 6〉은 현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민철훈(閔哲勳) 대례복으로 민철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1900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전권공사, 1901년 독일, 오스트리아 전권공사를 역임한 바 있다(Kyungwoon Museum [KM], 2012). 민철훈 대례복의 대례의는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 수장과 령장은 심청색나사, 안감으로는 흑색 견직물을 사용하였고(Lee, 2013) 전면표장으로 전근화 6지,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6지를 수놓은 칙임관 1등의 대례복이다. 하의는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 안감으로 백색 견직물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앞 중심에 여섯 개의 꽃잎으로 조각된 금제 단추가 5개 달려 있다. 대례바지는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를 사용하였고 칙임관 1등에 해당하는 양조요철문의 금선을 바지 좌우 측면에 두었다. 본 대례복은 대례의와 하의, 바지 안쪽의 상표를 통하여 19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6〉 Min Cheol-hoon's court costume
(KM, 2012, p. 54, pp. 63-77)



〈Fig. 7〉 Min Cheol-hoon's hat





〈Fig. 8〉 Park Ki-jong's court costume
(Park Ki-jong's court costume [*박기종 대례복 일괄*], n.d.)



〈Fig. 9〉 Park Ki-jong's hat
(Park Ki-jong's hat [*박기종 예모*], n.d.)

(KM, 2012).

〈Fig. 7〉의 대례모는 바탕 소재로 흑모천아융을 사용하였고 산형으로 정수리 끝에는 칙임관을 상징하는 백색의 털을 장식모로 사용하였다.

〈Fig. 8〉은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박기종(朴琪淙) 대례복으로 박기종은 1900년 중추원 의관(議官) 주임관 4등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Park Ki-jong's court costume", 2026). 박기종 대례복의 대례의 바탕 소재는 심흑감나사, 수장과 령장은 연청색나사, 안감은 백색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전면표장으로 전근화 4지,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6지를 수놓은 칙임관 2등의 대례복이다(Lee, 2013). 〈Fig. 9〉의 대례모는 바탕 소재로 흑모천아융을 사용하였고 산형으로 정수리 끝의 장식모는 칙임관을 나타내는 백색의 털로 장식하였다.

〈Fig. 10〉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대례복으로 대례의의 바탕 소재는 심흑감나사, 수장과 령장은 심청색나사, 안감은 흑색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전면표장으로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4지를 수놓은 주임관 대례복이다(Lee, 2013). 대례바지는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를 사용하였고 주임관에 해당하는 단조요철문의 금선을 바지 좌우 측면에 두었다. 〈Fig. 11〉의 하의는 전술하였던 민철훈의 하의와 동일하게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와 안감으로 백색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앞 중심에 금제 단추 5개가 달려 있다.

1900년 〈문관대례복제식〉과 〈문관대례복도식〉에 따른 대례복 착장은 사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1899년 주러시아 공사로 전임되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특명전권공사를 겸임하였고 1911년 순국한 이범진(李範晉)의 사진으로(France National Institute of Far Eastern Asia Research & Korea University Museum [FNIFEAR & KUM], 2006) 이범진 대례복의 대례의는 전면표장으로 전근화 6지,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6지를 수놓은 칙임관 1등 대례복의 착장 사진이다. 〈Fig. 13〉은 1900년 중추원 의장을 지낸 김가진(金嘉鎭)의 사진으로(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DTC Textile Museum [NFMK & DTCTM], 2016) 김가진 대례복의 대례의는 전면표장으로 전근화 4지,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6지를 수놓은 칙임관 2등 대례복의 착장 사진이다. 이범진과 김가진 모두 대례모에 칙임관을 상징하는 백색의 장식모를 사용하였다. 〈Fig. 14〉은 1899년 공사관 2등 참서관에 임용되어 1900년 이범진을 수행하였던 남필우(南弼祐)의 사진으로(FNIFEAR & KUM, 2006) 남필우 대례복의 대례의는 전면표장으로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4지를 수놓은 주임관 대례복의 착장 사진이다. 〈Fig. 15〉은 주한 프랑스 명예 총영사 C. H. Roulina의 사진으로(FNIFEAR & KUM, 2006) 남필우와 같이 대례의의 전면표장으로 좌우 칼라 부분에 반근화 4지를 수놓은 주임관 대례복의 착장 사진이다. 남필우와 C. H. Roulina의 대례모에는 주임관을 나타내는 흑색의



〈Fig. 10〉 Korea University Museum court costume



〈Fig. 11〉 Korea University Museum Waistcoat

(KM, 2017, pp. 108-109)



〈Fig. 12〉 Yi Beom-jin (FNIFEAR & KUM, 2006, p. 203)



〈Fig. 13〉 Kim Ka-jin (NFMK & DTCTM, 2016, p. 20)



〈Fig. 14〉 Nam Phil-woo (FNIFEAR & KUM, 2006, pp. 203-204)



〈Fig. 15〉 C. H. Roulina (FNIFEAR & KUM, 2006, pp. 203-204)

장식모를 사용하였다.

소례복에 대한 제식은 『관보』에 명시된 것은 없었으나 〈문관복장규칙〉의 규정을 따라 서구식 연미복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미복은 앞여밈이 싱글 브레스티드와 더블 브레스티드로 앞자락의 허리 아래를 각지게 하고 뒷자락과 비스듬하게 연결하여 뒷자락이 제비의 꼬리처럼 갈라진 형태였다. 이 의복은 서구 남성들이 밤의 정장으로 주로 착용한 것으로 19세기 초에는 낮과 밤에 모두 착용하였고 1820년대에는 주로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로 밤에 착용하였으며 1860년대 이후에는 패턴이 정형화되었다(Lee, 2018). 소례복의 소재는 서구식 의제를 먼저 도입하였던 일본의 규정을 참고하여 연미복과 하의, 바지의 바탕 소재로 흑색 융을, 셔츠의 소재로 백색의 셔츠지를(Lee, 2018)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례복 규정은 1905년 1월 16일에 『관보』의 정오를 통하여 개정되어 서구식 연미복과 서구식 프록코트로 나누어졌다(*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1905). 서구식 연미복은 진사고모, 하의, 바지, 구두(鞋)로 구성하였고 하의는 가슴이 트인 흉부활개제(胸部濶開製) 형태, 바지는 상의와 동일한 색과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구두는 옻색 가죽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예식원 관원은 궁내에서 예식으로 진참(進參)할 시에 금제 단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서구식 프록코트는 본 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소례복 제도에 도입되었는데 진사고모, 하의, 바지, 구두로 구성하였고 하의는 가슴이 점점 좁아지는 흉부초협제(胸部稍狹製) 형태, 바지는 상의와 다른 색과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구두는 연미복의 구두와 동일하게 옻색 가죽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서구식 평모와 순색의 구두를 착용할 때는 보통 복장을 따른다고 명시하였다(*Beopgyuyupyeon*, 1908a). 이처럼 소례복을 연미복과 프록코트로 나누어 각 의복의 구성, 상의와 하의의 형태, 바지의 색과 소재를 다르게 구분하였다.

〈문관복장규칙〉에 따른 소례복 형태는 당시 유물 자료와 착장 사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소례복 유물로는 연미복의 경우 대한제국기 유물로 확인된 것이 없으며 프록코트 유물은 부산박물관의 박기종 유물 1점, 모닝코트 유물은 한국자수박물관의 민철훈 유물 1점이 대한제국기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Lee, 2018).

〈Fig. 16〉은 현재 부산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박기종의 프록코트로 바탕 소재는 흑색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흑색 견직물과 청색 줄무늬가 있는 백색 견직물을, 주머니 안감은 갈색 면직물을 사용하였다. 코트의 안쪽에 부착된 상표를 통하여 제작처를 알 수 있는데 'ASADA. TAILOR.'라 표기된 상표에 '京城淺田洋服店'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Choi, 2015) 박기종의 프록코트는 국내 양복점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16〉 Park Ki-jong's frock coat
(Park Ki-jong's frock coat [*박기종 프록코트*], n.d.)



〈Fig. 17〉 Min Cheol-hoon's Morning Coat
(KM, 2012, p. 86)



〈Fig. 18〉 Yi Beom-jin, Yi Ki-jong, and Yi Wi-jong
(FNIFEAR & KUM, 2006, p. 203)

〈Fig. 17〉은 현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민철훈의 모닝코트로 바탕 소재는 흑색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흑색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하의의 바탕 소재도 흑색 모직물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백색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앞 중심에는 흑색의 체크무늬 싸개단추가 5개 달려 있고 단추 구멍 사이에는 회중시계 걸이가 있다. 바지의 바탕 소재는 짙은 회색의 줄무늬 모직물을 사용하였다(KM, 2012).

〈Fig. 18〉은 1900년대 이범진이 프랑스 외교관으로 파견되었을 당시 그의 두 아들인 이기종(李璣鍾, 좌), 이위종(李瑋鍾, 우)과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FNIFEAR & KUM, 2006) 이범진과 이기종이 착용하였던 소례복 구성은 진사고모, 연미복, 하의, 바지, 구두, 그리고 백색 셔츠, 백색 나비넥타이, 백색 장갑인 것을 알 수 있다.

상복은 서구식 통상모, 서구식 통상의, 하의, 바지로 구성하였으며 〈문관복장규칙〉에 따른 상복의 형태는 당시 상복 착장 사진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Fig. 19〉은 개화파 인물로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하였고 1896년에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던 서재필(徐載弼)의 사진이다. 그가 착용하였던 서구식 통상의는 서구국가에서 평상복으로 착용하였던 색코트(sack coat)로 기본형태가 프록코트보다 짧은 길이에 허리 부분이 조이지 않으며 소매너비가 넉넉한 형태였다(Compilation Committee of 110 Years' Modern Fashion, 2012). 〈Fig. 20〉는 1907년 네덜란드 평화회의보에 실렸던 헤이그 특사단의 사진으로 왼쪽부터 부사 이준(李儁), 정사 이상설(李相卨), 러시아 주재 한국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이다("Special Envoy to Hague", n.d.). 당시 특사단은 통상의, 하의, 바지 구성의 상복을 착



〈Fig. 19〉 Suh Jae-phil
(Kim, 1990, p. 66)



〈Fig. 20〉 Special Envoy to Hague
(*Biographical Dictiona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n.d.)

용하였으며 통상의로 착용하였던 색코트의 바탕 소재로는 주로 모직물과 옥스퍼드(oxford) 소재를 사용하였고 하의와 바지의 소재도 통상의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다(Kim,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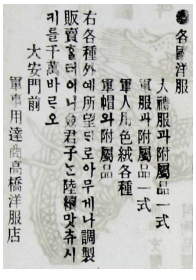
1900년에 제정되었던 〈문관복장규칙〉은 1904년, 1905년, 1907년에 『관보』의 정오를 통하여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각 복장의 착용시기와 구성의 순서가 바뀌었다. 또한,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소례복의 종류가 연미복 한 가지였던 것에 프록코트가 추가되어 두 종류로 나누어졌으며 상장(喪裝)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문관대례복제식〉 또한 1904년과 1905년에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의복 형태의 변화는 없었고 문양의 변화만 있었던 것이 을사늑약 이후 1906년에는 대례복의 형태가 이전과 다르게 규정되었다(*Beopgyuyupyeon*, 1908b).

해당 시기 문관복의 소재로 사용하였던 직물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대례복의 바탕 소재로 사용하였던 나사는 포르투갈어 '라샤(raxa)'를 한자어로 음역(音譯)한 것으로 경사와 위사에 모사(毛絲)를 넣어 직조한 모직물이며 보온 효과가 좋아서 겨울용 양복과 코트의 소재로 사용하였던 직물이다(National Folk Museum of Korea[NFMK], 2017a). 나사는 대한제국기 의제개혁 당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하였던 직물로 수입 직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사를 바탕 소재로 사용하였던 대례복의 국내 제작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물을 통해 외국에 주문하여 제작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Lee, 2012) 한편, 대한제국기에 발간되었던 신문 광고에서는 국내에서도 대례복 제작이 가능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1〉, 〈Fig. 22〉, 〈Fig. 23〉는 관련 시기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실린 양복점 광고로 대한제국인과 일본인이 운영하였던 양복점에서 문무관의 대례복을 비롯하여 예복과 각국의 양복, 부속품 세트 등을 취급하고 판매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소례복과 상복에 사용하였던 융은 모사 등을 사용하여 직물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털이 일어나도록 가공한 직물로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특징이며 1915년에 기록된 『조선상염직물명칭유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는 융에 대하여 두꺼운 모직물 및 유사한 제품을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NFMK, 20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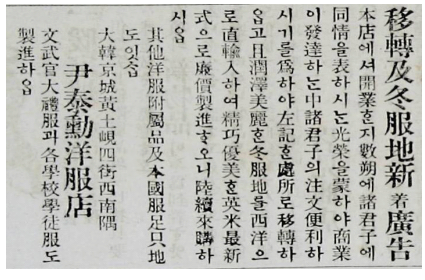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특징을 직물산업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문관복에 서구식 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관복의 서구화가 이루어졌으며 바탕 소재로 견직물을 주로 사용하였던 전통식 문관복과 달리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웠던 모직물을 바탕 소재로 사용하였던 것


各國洋服
人物服과附屬品一式
軍服과附屬品一式
軍人凡色統各種
軍帽와附屬品
右各種外에所望되로아무게나調製
販賣호터이니僉君子는陸續맛쥬시
기를千萬바라오
大安門前
軍用達商高橋洋服店

〈Fig. 21〉 Suits of other countries [各國洋服].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1901, October 1, p. 3)


陸軍將校服一切
洋服附屬品一切

〈Fig. 22〉 Army officer uniforms [陸軍將校服一切].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1905, January 28, p. 4)


移轉及冬服地新着廣告
本店에서開業호지數朔에諸君子에
同情을表하시ᄂᆞᆫ光榮을蒙하야商業
이發達하ᄂᆞᆫ中諸君子의注文便利하
시기를爲하야左記호處所로移轉하
오고且潤澤美麗호冬服地를西洋으
로直輸入하여精巧優美호英米最新
式으로廉價製進호오니陸續來購하
시오
其他洋服附屬品及本國服足只地
도잇소
大韓京城黃土峴四街西南隅
尹泰勳洋服店
文武官大禮服과各學校學徒服도
製進하오

〈Fig. 23〉 Advertisement of the new introduction of more advanced winter uniform system [移轉及冬服地新着廣告].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1905, October 11, p. 3)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을 확인하였다. 〈문관복장규칙〉에 따른 유물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대례복의 대례의와 대례바지의 바탕 소재로 심흑감나사를, 수장과 령장의 바탕 소재로 연청색나사와 심청색나사를, 안감으로 백색과 흑색의 견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례복의 바탕 소재로도 주로 흑색 모직물과 안감으로 흑색과 백색 견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대례복의 경우 유물은 모두 외국에서 제작되었으나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당시의 신문 광고 내용을 통하여 국내 제작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소례복은 유물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작하여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IV.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산업

1. 수출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 당시 직물 수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 수출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대한제국기 수출 통계 자료는 미비하였으며 면직물 수출의 경우 1897~1904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견직물 수출은 대한제국기 의제개혁이 시작되었을 당시인 1897년에 아관파천이 발생하였던 전년도에 비해 1.7배가량 증가하였지만 1898~1900년의 수출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1901년부터 견직물 수출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는데 1897년보다 견직물 수출이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국가 근대화 정책 중 잠업진흥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당시 잠업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침체되었던 양잠과 견직물 생산 기술, 관원체제를 개혁함으로 수입 견직물의 국내 시장 침투에 대응하고 견직물 자급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갑신의제개혁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잠업진흥정책은 양잠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 국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1889년 폐지되기도 하였지만(Kim,

〈Table 2〉 Reforms of Clothing for Civil Servants and Fabric Export Changes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Unit: $, ¥)[a]

Year	Major Incident	Cotton	Raw Silk Thread(Silk)
1895[b]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0	2,921
1896	Agwan Pacheon	1,748	254
1897	Gwangmu Reform	No record	437[d]
1898[c]~1900			No record
1901			2,402
1902			2,456
1903			4,035
1904	Russo-Japanese War		3,189
1905	Eulsa Neukyak		5,934
1906	-		15,942

a. currency unit: US dollar for 1895~1897, Japanese Yen for 1898~1906
b. source for 1895~1897: TRE, 1984b
c. source for 1898~1906: Kajimura, 1983
d. fabric exports since 1897 include hemp cloth

1986), 대한제국기에는 본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면서 이후 견직물 생산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901년 이후 견직물 수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4년에는 견직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20.9%가량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던 해로 본 전쟁이 대한제국 내에서 일어남에 따라 대한제국의 견직물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1905년에는 견직물의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86%가량 증가하였고 다음 해인 19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68.6%가량 급증하였는데 이는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대한제국 무역 간섭과 상공업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 수출의 변화는 면직물 수출의 경우 관련 기록이 미비하여 분석에 제한이 있었으나 견직물 수출의 경우 대한제국의제개혁과 함께 국가 근대화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잠업진흥정책을 비롯하여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던 역사적 사건 등이 견직물 수출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으로 유추된다.

2. 수입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 당시 직물 수입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 수입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대한제국기 의제개혁이 시작되었을 당시(1897년) 직물의 수입은 면직물과 견직물, 모직물 모두 전년도인 1896년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하였다. 면직물 수입은 직물 수입의 대부분(89%)을 차지하였고 해당 시기 수입되었던 면직물 종류로는 셔츠지, 안감 면직물 등이 있다. 그중 셔츠지 수입의 증가는(TRE, 1984b)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을미의제개혁 시기 시행되었던 단발령과 서구 의제 허용 규정이 1896년 아관파천의 영향으로 철회되었음에도 학생들과 관원들 등에 의해 일반화가 됨에

〈Table 3〉 Reforms of Clothing for Civil Servants and Fabric Import Changes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Unit: $, ¥)[a]

Year	Major Incident	Cotton	Silk	Wool
1895[b]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4,583,223	771,309	64,570[d]
1896	Agwan Pacheon	3,338,515	375,921	40,956
1897	Gwangmu Reform	5,061,926	548,445	64,658
1898[c]		5,185,406	768,742	57,748
1899		5,384,460	638,680	58,320
1900		5,764,990	655,400	53,800
1901		6,182,912	1,238,712	164,179
1902		5,561,400	854,031	77,515
1903		6,009,321	824,896	78,266
1904	Russo-Japanese War	8,456,940	1,027,941	120,916
1905	Eulsa Neukyak	12,005,922	1,187,023	199,653
1906	-	8,208,706	705,037	177,230

a. currency unit: US dollar for 1895~1897, Japanese Yen for 1898~1906
b. source for 1895~1897: TRE, 1984b
c. source for 1898~1906: Kajimura, 1983
d. fabric imports for 1895~1897 include blended fabrics of cotton and wool

따라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 당시 단발령과 서구 의제 허용 규정이 시행되어 일본인이 운영하였던 국내 양복점에서 조선 궁중의 양복을 주문받아 납품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Kim, 1990), 신문 광고를 통해 이후 양복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조선인이 운영하는 양복점도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Corporation", 1896). 이처럼 단발령과 서구 의제 허용 규정의 일반화로 양복의 구성품인 셔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셔츠지 수입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재개혁에서는 1898년에 외교관복에 서구식 의제를 도입, 1899년에 외교관복의 규정을 개정, 1900년에 문관복에 서구식 의제를 도입하는 등 의제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면직물과 견직물 수입 증가세 유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직물 수입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증감의 폭은 크지 않았다.

190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면직물이 1.1배가량, 견직물이 2배가량, 모직물이 3배가량으로 직물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제정되었던 서구식 문관복 제도인 〈문관복장규칙〉이 면직물과 견직물, 모직물 수입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대례복은 외국에 주문하여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국내에서도 대한제국인과 일본인이 운영하였던 양복점에서 대례복, 소례복과 같은 예복을 비롯하여 양복을 판매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소례복인 연미복, 프록코트, 상복인 색코트 등과 함께 대례복 제작도 국내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면직물 수입의 증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식 문관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직물 중 셔츠지 수요가 상당량 증가하면서 면직물 수입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견직물 수입 증가 또한 『조선산업지(朝鮮産業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견직물이 의복의 안감지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Yamaguchi, 1910) 문관복 유물에서도 안감지로 견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관의 대례복, 소례복, 상복의 안감지로 견직물이 사용되면서 견직물 수입 변화의 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직물의 수입의 경우 해당 시기 회색 및 러시아제 나사, 이탈리안 나사, 플란넬(융) 등의 모직물이 수입되었는데(TRE, 1984b) 이와 관련하여 〈문관복장규칙〉으로 나사와 융 등의 모직물이 문관복의 바탕 소재로 규정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직물 수입 변화의 한 요인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례복인 대례의의 바탕 소재는 심흑감나사, 수장과 령장은 연청색나사로 규정되어 모직물이 사용되었고 대례바지의 바탕 소재 또한 대례의와 동일한 모직물이 사용되었으며 대례모의 바탕 소재로 흑모천아융이 사용되었다. 소례복인 연미복, 프록코트, 하의, 바지의 바탕 소재로도 모직물이 사용되었고 상복이었던 색코트의 바탕 소재로도 모직물이 주로 사용되면서 수입 모직물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제국인과 일본인이 운영하였던 국내 양복점에서도 대례복을 비롯하여 예복과 각국의 양복 등의 제작이 가능하였던 것과 『조선산업지』에 의하면 대한제국 내 일본인의 양복업과 관련하여 일본인이 양복을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양복지의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Yamaguchi, 1910) 대한제국기 의제개혁으로 문관복이 서구화가 됨에 따라 양복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수입 모직물 사용 증가에 영향을 준 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던 190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면직물이 41%가량, 견직물이 25%가량, 모직물이 54%가량 급증하였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해인 1905년에도 직물 수입이 전반적으로 많은 양 증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면직물이 42%가량, 견직물이 15%가량, 모직물이 65%가량 증가하였다. 『조선산업지』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을 비

롯하여 부산과 인천 등에서 양복 수요가 아주 많으며 두 벌에서 세 벌 이상의 양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대한제국에서의 양복 수요도 증가하였다고 한다(Yamaguchi, 1910). 또한, 해당 시기에는 〈문관복장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중 연미복 한 종류였던 소례복 제도에 프록코트가 도입됨에 따라 면직물과 견직물, 모직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1905년에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대한제국 내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가 증가하였고 모직물 수입에서는 일본제품이 영국제품을 압도하였다(TCHCCS, 1979).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6년에는 면직물이 32%가량, 견직물이 41%가량, 모직물이 11%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일본이 국내 시장을 점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을사늑약 이전 대한제국 무역에서는 수입 직물의 수출국이 청, 러시아, 영국, 미국 등 다양하였지만 대한제국 내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일본의 직물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직물이 대부분 일본제품으로 교체되었다(TCHCCS, 1979). 이로 인하여 청,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의 제품 수입이 감소하여 해당 연도 직물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 수입의 변화는 의제개혁으로 문관복에 서구식 의제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직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면직물과 견직물, 모직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 당시 의제 관련 규정이 꾸준히 공표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서구식 의제가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처럼 서구식 의제의 일반화도 직물 수입 증가에 대한 한 요인으로 뒷받침될 수 있겠다.

V. 결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의제개혁이 직물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은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광무개혁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책과 자주 근대화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되었다.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관련 국가들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승인받으며 일본의 침략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으며 관복의 경우 일본 관원의 의제보다 한 등급 낮게 규정되었다. 이후 1910년에는 국권 피탈이 발생하였다.

둘째,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의 내용과 특징은 1900년 〈문관복장규칙〉이 제정되어 문관복에 서구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문관복이 대례복, 소례복, 상복으로 분류되었다. 대례복의 구성은 대례모, 대례의, 하의, 대례바지, 검, 검대, 백포하금, 백색수투 등으로 규정되었으며 바탕 소재는 심흑감나사, 연청색나사, 흑모천아융 등으로 규정되었으나 대례복 유물을 통하여 심청색나사도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감으로는 백색 견직물과 흑색 견직물이 사용되었다. 소례복인 연미복과 프록코트의 구성은 모두 각각 진사고모, 하의, 바지 등으로 규정되었으며 소재는 연미복의 경우 흑색 융과 백색 셔츠지 등으로 규정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당시의 유물을 통하여 소례복은 바탕 소재로 흑색 모직물과 안감으로 흑색과 백색의 견직물 등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복은 서구식 통상모, 서구식 통상의, 하의, 바지 등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통상의는 색코트 형태로 흑색 모직물과 옥스퍼드 직물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과 직물산업

수출입 변화에서는 직물 수출의 경우 수출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면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견직물의 경우 대한제국기에 잠업진흥정책이 꾸준히 시행되면서 견직물의 수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물 수입의 경우 서구식 문관복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문관복이 서구화됨에 따라 면직물과 견직물, 모직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물 수입 증가는 서구식 문관복 제작에 따른 셔츠지 수요 증가로 면직물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견직물 수입의 증가는 대례복, 소례복, 상복의 안감 소재로 견직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변화로 추론되며, 모직물 수입의 증가는 나사와 융 등 모직물이 사용되는 〈문관복장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나사와 융 등의 직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으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문관복에 서구식 의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수입 직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대한제국 문관복 의제개혁 시기 직물 수출입 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에 따른 직물의 수출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은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상황과 당시 대한제국이 당면하였던 문제점 등이 반영된 결과물로서 서구식 문관복 의제 도입으로 이전에는 문관복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았던 직물이 주요 소재로 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서구식 의복 제작에 적합하지 않았던 국내 생산 수공업 직물이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생산 되었던 수입 직물로 대체되어 수입 직물 수요 증가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으며 문관복 소재와 관련된 수입 직물산업에 변화를 초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제개혁은 일반 백성들의 의복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직물산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첫째, 대한제국기 직물산업의 변화는 국외적으로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청 등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일본의 직물산업 변화, 국내적으로 대한제국 내 서구식 군복 제도와 경관복 제도의 개정과 서구식 의복의 일반화, 양복점 수의 증가 등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인 영향을 비롯하여 앞서 시행되었던 을미의제개혁 제도와의 관계성 등의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문관복 의제개혁으로만 그 요인을 제한하여 직물산업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문관복 의제개혁이 직물산업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며 대한제국기 직물산업 변화에 대한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 직물산업 관련 자료로 러시아의 조선 연구서인 『한국지』와 일본학자 가지무라 히데키의 조선의 직물산업 관련 연구, 일본의 조선산업 조사서인 『조선산업지』 등을 통하여 당시 직물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선해관의 무역 보고서인 『조선해관연보(朝鮮海關年譜)』와 일본의 조선 직물산업 조사서인 『조선면업사(朝鮮綿業史)』 등의 자료가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한제국기 일본 직물산업은 대한제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참고된다면 국내 직물산업 변화에 대하여 더욱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문관복의 구성 중 소재 사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의복의 바탕 소재를 중심으로 직물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관복의 부속품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관복 의제의 각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다양한 유물 관련 자료가 더해진다면 규정의 시행 정도에 대하여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의제개혁과 직물산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dvertisement of the new introduction of more advanced winter uniform system [移轉及冬服地新着廣告]. (1905, October 11).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3.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An, H. J. (2006). A study on the design and pattern applying men's coat of 18th and 19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8*(2), 145-157.

Army officer uniforms [陸軍將校服一切]. (1905, January 28).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4.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Beopgyuyupyeon [法規類編]. Vol. 2 (Gyujemun [規制門], 161a-163a). (1908a).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6032_00&vol_no=0002

Beopgyuyupyeon [法規類編]. Vol. 2 (Gyujemun [規制門], 163a-169a). (1908b).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6032_00&vol_no=0002

Choi, E. J. (2015). A study of the shape and tailoring of frock coats in the Korean Empire: Park Ki-Jong's frock coa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3*(3), 439-453. https://doi.org/10.29049/RJCC.2015.23.3.439

Choi, K. S. (2008). A study on court dress in gungnaebu of Daehan Empire. *Korean Studies Quarterly, 31*(2), 3-39. https://doi.org/10.25024/ksq.31.2.200806.3

Choi, K. S. (2011). Preparation of the Japanese compulsory annexation of Korea appeared in the changed system of the western-style full dress uniform in 1905~1906.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39), 5-45. https://doi.org/10.15799/kimos.2011..39.001

Choi, T. H. (1991). Research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economy: Korea's tariff system and national economy during the era of port opening [*近代韓國經濟史 硏究序說: 開港期의 韓國關稅制度와 民族經濟*]. Kookmin University Press.

Compilation Committee of 110 Years Modern Fashion. (Ed.) (2012). *110 years of modern fashion: fashion 1900-2010.* Gyomunsa.

Corporation [쥬식회샤]. (1896, May 26). *The Independence* [獨立新聞], 3.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Yejeon [禮典] Euijang [儀章] Bok [服]). (1785a). https://db.history.go.kr/id/jlawa_303_0030_0130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Yejeon [禮典] Euijang [儀章] Dae [帶]). (1785b). https://db.history.go.kr/id/jlawa_303_0030_0140

France National Institute of Far Eastern Asia Research & Korea University Museum [FNIFEAR & KUM]. (Eds.) (2006). *(120e anniversaire de l'etablissemen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franco-coreennes) Souvenirs de Seoul: France/Coree 1886-1905.* France National Institute of Far Eastern Asia Research & Korea University Museum.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Ed.) (1997). History of Korean military uniform development: Ancient to the times of independence movement. Vol. 1. [*韓國의 軍服飾 發達史 Ⅰ, 古代~獨立運動期*].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Kajimura, H. (1983). Distribution and production structure of the cotton industry in the late Joseon period, Sagyejeol (Ed.), A research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economy [*韓國近代經濟史硏究*] (pp. 101-212). Sagyejeol.

Kim, J. S. (1990). *100 years history of Korean suit.* Mirinae.

Kim, M. J. (1977). A study on official uniform for civil servants in the enlightenment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 67-84.

Kim, S. Y. (2018). Kind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imported clothing and textiles in Kore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8*(8), 32-51. https://doi.org/10.7233/jksc.2018.68.8.032

Kim, S. Y. (2021). Type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textile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during the port-opening era: focusing on cotton, silk, and woollen clot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5*(5), 770-787. https://doi.org/10.5850/jksct.2021.45.5.770

Kim, Y. G. (2016). *Diplomatic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im, Y. H. (1986). *A study on the sericulture development policy after the opening to foreign trade (1876-1905)*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o, H. K. (1999). Analysis of textile pattern design focusing an the age of after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1), 141-156.

Kyungwoon Museum [KM]. (Ed.) (2012). *Formal dress for men in the Korean Empire period: New waves, idependent embracement.* Kyunggi Girls' High School Kyungwoon Museum.

Kyungwoon Museum [KM]. (Ed.) (2017). *The Korean Empire, dignity of costume.* Kyunggi Girls' High School Kyungwoon Museum.

Lee, K. M. (2008). *Western-styled court costume paradigm of the Korean Empir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ttps://www.riss.kr/link?id=T11455938

Lee, K. M. (2010a). Establishment of western-style

court dress and its formal characteristics in the Meiji period of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5), 71-87.

Lee, K. M. (2010b). The institution of court costume in the year 1900 (the 4th year of Korean Empire Gwangmu) and the symbolism of Mugunghwa, the rose of sharon patter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3), 123-137.

Lee, K. M. (2011). A study on the revision and the loss of national identity of western-styled court costume in the Daehan Empi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4), 103-116.

Lee, K. M. (2012). *Western-styled court costume paradigm of the Korean empire.* Minsokwon.

Lee, K. M. (2013).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urt dresses in the Daehan Empire: Focused on the coat patter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6), 56-68. https://doi.org/10.7233/jksc.2013.63.6.056

Lee, K. M. (2018). A study on the western-style Soryebok during the Daehan Empir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21*(3), 65-80. https://doi.org/10.16885/jktc.2018.9.21.3.65

Lee, Y. H. (2017). History of Korean economy: Historic Developments of the Koreans. Vol. 1. [*한국경제사 Ⅰ: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Iljogak.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DTC Textile Museum [NFMK & DTCTM]. (Eds.) (2016). *100 years history of tailors and Daegu.*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DTC Textile Museu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Ed.) (2017a).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Vol. 1.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 (Ed.) (2017b).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Vol. 2.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Ed.) (2013a). Korean history: Conflicts between the enlightenment party and the conservatives. Vol. 38. [*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Ed.) (2013b). Korean history: External powers'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 The Independence Club. Vol. 41. [*한국사 41 열강의 이권 침탈과 독립협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Ed.) (2013c). Korean history: The Korean Empire. Vol. 42. [*한국사 42 대한제국*].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Ed.) (2013d). Korean history: Recovery movement of national sovereignty. Vol. 43. [*한국사 43 국권회복운동*].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官報]. (1898, June 21).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1000000.do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官報]. (1900, April 19).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1000000.do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官報]. (1901, September 3).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1000000.do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官報]. (1905, January 16).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1000000.do

Official Gazettes of the Korean Empire [官報]. (1906, February 28).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1000000.do

Oh, D. H. (1991). Modern history of Korean currency [*韓國近代貨幣史*].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Pai chai college students [배지 학당 학원들이]. (1896, June 16). *The Independence* [獨立新聞]. 2.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Park Ki-jong's court costume [*박기종 대례복 일괄*]. (2026, March 25). https://museum.busan.go.kr/busan/collectinfo01/view?curPage=1&bbsNo=1&srchDiv=&srchText=%EB%B0%95%EA%B8%B0%EC%A2%85&dataNo=5493

Park Ki-jong's court costume [*박기종 대례복 일괄*]. (n.d.).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05002000114000000

Park Ki-jong's frock coat [*박기종 프록코트*]. (n.d.).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05002000119000000

Park Ki-jong's hat [*박기종 에모*]. (n.d.). https://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050020001150000

Park, J. K. (2014). *Change of Korean clothing custom due to the imported textile from 1876 to 1945*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ttps://www.riss.kr/link?id=T13388364

Song, B. K., Park, Y. O., & Park, H. S. (1971). Statue collection of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Vol. 3. [*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Ⅲ*]. National Assembly Library.

Song, K. J. (2003). An economic exchange between Chosun and the West during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28,* 325-359.

Special envoy to Hague [헤이그 특사]. (n.d.). *Biographical Dictiona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Retrieved June 30, 2025, from https://search.i815.or.kr/media/publication__media/images/202509/30/1yxugzRNZp.1200x1500.jpg

Suits of other countries [各國洋服]. (1901, October 1). *Hwangseong shinmun* [皇城新聞], 3. https://www.nl.go.kr/newspaper/index.do

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高宗實錄]. (1899a, January 1). http://sillok.history.go.kr/

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高宗實錄]. (1899b, August 3). http://sillok.history.go.kr/

The Annals of Emperor Gojong's Reign [高宗實錄]. (1900, April 17). http://sillok.history.go.kr/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TCHCCS]. (Ed.) (1979). 600 years' history of Seoul. Vol. 3 [*서울六百年史 第3卷*].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ussian Empire [TRE]. (Ed.) (1984a). Journal of Korean Affairs [*韓國誌*]: Tex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ran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riginal work published 1900)

The Russian Empire [TRE]. (Ed.) (1984b). Journal of Korean Affairs [*韓國誌*]: Appendix・Index.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ran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riginal work published 1900)

Yamaguchi, S. (1910). Journal of Joseon's Industry [*朝鮮產業誌*]. Vol. 2. Bomungwan.

Yoo, H. K.(1980). *A study on Korean costume history.* Ewha Womens University Press.